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시행

□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장규율에 의한 보험업계의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완전판매비율 공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함.

-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지속적 검사 시스템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는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.
 - 보험회사 측면에서 볼 때 불완전판매 근절 노력 여부와 관계되는 감독규제상의 차별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현 감독규제가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없기 때문임.
 - 소비자 측면에서도 모집질서 준수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합리적인 보험회사 및 모집채널 선택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존재함.
- 따라서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공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게는 불완전판매비율을 고려한 보험상품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불완전판매 개선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계획임.

□ 생명보험회사(22개) 및 장기손해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회사(12개)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보험회사 공시를, 추후에 보험협회 비교공시를 시행할 계획임.

- 보험공시의 경우에는 모집채널별(8개) 개별 보험회사 및 생·손보업계 평균 불완전 판매비율을 함께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연 1회 공시하도록 할 계획임.
-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에는 전체 보험회사별·모집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을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연 1회 비교 공시하도록 할 예정임.
- 보험회사 공시는 2010년 6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FY2009 결산공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보험협회의 비교공시는 법규 근거 마련 후 시행 추진할 방침임.

(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 공시방안 마련,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 보험영업감독팀, 5/19)